

현단계 서사론의 과제와 전망

황 국 명*

【요약】

오늘날 '서사(narrative)'라는 용어는 문학분과를 넘어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서사 개념의 확산과 확장은 서사의 편재성과 다양성, 문화콘텐츠로서의 가치, 분과학문의 서사적 전회, 지식과 이론의 서사화 경향 등과 무관하지 않다. 현재 서사로 지칭되는 다채로운 현상들은 구조주의 서사학의 방법으로 충분히 해명하기 어렵다. 언술우위론은 서사를 언어게임으로 취급하고 이야기우위론은 추상적인 구조나 체계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사의 보편적인 구조나 속성보다 인간의 서사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인식의 가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사는 인간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수단이며 서사의 질서원리(구조)는 삶의 과정과 다원적인 관계에 있다. 면밀하게 따져보면 삶과 이야기에서 우리는 능동적인 행위주체가 아니라 능동적인 이야기 주체이다. 그러나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는가라는 발화 포지션의 문제는 정치경제적 권력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서사론은 사회적 약소자들을 이야기하는 새로운 주체로 이해하고 이들이 생산하는 마이너리티서사를 새로운 관심 영역으로 삼을 만하다.

【주제어】 서사, 서사적 전회, 이야기주체, 소수자, 마이너리티서사

* 인제대학교 한국학부

I. 들머리

최근 이야기, 서술, 스토리텔링 등과 함께 ‘서사(narrative)’라는 말이 널리 유통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문학연구 쪽에서 서사를 고유한 연구 대상으로 여겨왔지만, 이는 전적으로 오해일 가능성이 크다. 서사가 근본적으로 인간에 관한 것이고 다른 인간을 표적으로 삼아 수행되는 것이라면, 서사는 인간학의 근본 범주임이 분명하고, 인문 사회과학을 포함하여 자연과학 및 공학 또한 서사와 무연할 수 없는 노릇이다.

문학분과가 더 이상 독점할 수 없을 정도로 서사 개념이 사회 전반에 확산됨으로써 오늘날 서사는 언어적/비언어적 서사, 허구적/비허구적 서사, 문학적/비문학적 서사를 포괄한다고 이해된다. 이로써 기존 서사학의 개념과 방법을 적용할 영토가 넓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서사는 문학적 텍스트적 형식을 초월하도록 그 개념이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¹⁾

서사 개념의 확산과 확장 이면에 일정한 사회 문화적 근거가 있을 법하다. 또 이야기 개념의 충일 현상은 삶의 세계를 표상하거나 이론화하는 방식과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현상은 주의 깊게 이해되고 엄정하게 평가될 필요가 있다. 어떤 이론도 서사에 관한 질문을 고갈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다양한 서사 이론들은 변화하는 삶을 이해하고 개별 문화의 근본적인 가정을 정당화하는 데 기여하지만, 그 이론들이 제시하는 해답은 언제나 잠정적이고 한시적이다. 이는 무엇보다 우리의 삶 자체가 끊임없이 생성 전화한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서사 혹은 서사성(narrativity)의 본질은 상상력이나 허구성 못지않게 해명하기 어려운 문제로 보이며 그 해답은 철학의 몫이라고 여겨진다. 이에 본고는 서사 개념을

1) 서사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학문간의 통섭 혹은 학제간 연구가 가능할 수 있다. 자연서사학, 인지서사학 등은 분과학문과의 교섭을 통한 문학연구의 영역 확장일 것이다. 그 가능성을 모색한 D. Herman(ed.), *Narratologies* (Ohio State Univ.Press, 1999), J. C. Meister(ed.), *Narratology beyond Literary Criticism* (Walter de Gruyter, 2005)을 참고할 만하다. 또 서사의학이나 서사해석학 등은 분과학문이 서사 개념을 통해 개인과 사회에 대해 새로운 방법과 이론을 발전시킨 결과라 할 수 있다.

둘러싼 몇몇 논의를 비판적으로 개관하고 기존 서사학의 방법, 서사의 가치와 삶의 관계를 검토한 다음, 서사론의 새로운 방향을 전망하는 데 목적을 둔다. 문학적 서사의 전공자가 인접학문과의 회통을 희망하며 쓴, 서사연구의 장래에 대한 인상기일 뿐이다.

II. 서사 개념의 확산과 서사적 전회

서사 개념의 확산은 서사의 보편편재성에 대한 인식의 결과로 보인다. 시대와 장소, 계층에 관계없이 인간은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들으려는 욕구를 지니며 이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인간은 이야기하는 존재(homo narrans)이다. 또 롤랑 바르트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서사는 문학작품만의 특성이 아니며 모든 사회의 모든 층위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주장도 음미할 만하다.

오늘날 세계경제가 노동중심에서 지식중심의 경제로 이동하고, 이에 따라 문화산업이 중요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정도 고려할 만하다. 지식산업의 핵심을 문화콘텐츠라고 한다면 콘텐츠산업은 문화예술 영역과 융합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콘텐츠의 기획과 개발, 콘텐츠산업의 진흥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서사인 까닭이다. 헐리우드 영화나 디지털게임이 보편적인 서사구조나 주제에 근거함은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서사개념이 대중적으로 유통하게 된 배경에 서사의 편재성과 다양성에 대한 인식, 콘텐츠로서의 가치라는 문화산업적 계산이 있지만 다른 한편, 학술적인 차원에서 여러 분과학문이 서사로 관심을 이동한 사실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이는 여러 분과학문이 다루는 대상이나 현상이 서사성을 갖는다는 사실에 대한 주목, 일상적 삶에서 개인경험 이야기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것인데, 이런 관심 이동을 서사적 전회(narrative turn)라고도 말한다. 서사적 전회는 각 분과학문의 대상이 서사학 및 언어학에서 발전된 분석기법을 필요로 하며 각 분과의 학문적 전통에 얽매이지 않을 때 더 생산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판단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인간의 기억 자체가 서사형태로 구축된다는 것, 경험에 대한 이해 역시 서사화의 경향을 지닌다고 강조된다. 그 기억 속에서 우리의 삶은 서사의 주인공이

치러내는 삶과 다르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의 이야기이며 인간은 서사적 존재라는 것이다.²⁾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요인은 사회의 제 현상을 해명하려는 이론이나 지식담론 자체의 서사화 경향이다. 인간 성장의 처음과 끝, 대화과정을 통해 정신분석학을 제시하거나³⁾ 인간 역사를 “단 하나의 거대한 집합적 이야기”, “거대한 미완의 플롯”⁴⁾으로 여기는 것도 그러하다. 서사론의 관점에서 헤이든 화이트는, 역사는 연구대상일 뿐만 아니라 혹종의 글쓰기, 담론에 의해 매개되는 과거와의 관계라고 지적하기도 한다.⁵⁾

이상과 같은 몇 가지 주장을 볼 때, 사회세계가 온통 서사로만 여겨진다. 그러나 이런 입장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협애화(狹隘化)하거나 이해 내용을 단순화시킬 수도 있다. 우리의 경험은 명제형태로 기억될 수도 있고, 은유도 세계를 인식하는 삶의 방식이므로, 세계에 대한 서사적 이해가 만능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른 한편, 검증과 반증이 요구되는 과학적 지식과 달리, 서사적 지식은 화자, 청자, 제3자가 상대적 위치와 화용론적 규칙에 따라 펼쳐는 언어게임이라고 리오타르가 지적한 것처럼, 서사적 전회는 언어적 표상에 대한 포스트모던한 관심의 산물일 수 있다.⁶⁾ 리오타르의 주장은 분명 거대서사에 대한 성찰을 요청하는 것이지만, 또한

2) 이태수, 「인간: 미완의 기획」(인제대 인간환경미래연구원, 『인간·환경·미래』, 2008년 1호), 4-6쪽. 세상은 이야기의 중층구조로 되어 있다는 김용석의 주장처럼, 우리는 이야기를 지어낼 뿐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 속에 살고 있을지 모른다. 김용석, 『서사철학』(휴머니스트, 2009), 13쪽. 생크가 우리는 스토리 없이 삶을 시작하고, 삶을 통해 이야기를 획득한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출생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거나 긴 이야기의 일부일 수도 있다. 리오타르의 지적처럼,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 역시 주변 사람들이 행하는 이야기라는 언어게임의 지시대상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R. C. Schank, *Tell Me a Story: A New look at Real and Artificial Memory* (Macmillan, 1990), pp. 29-30.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포스트모던의 조건』(유정환, 이삼출, 민승기 역, 민음사, 1992), 65쪽.

3) 비문학 영역에서 서사이론의 적용한 사례로 주네트 외, 『현대서술이론의 흐름』(석경정 외 편역, 솔출판사, 1997), 마이클 J. 톨란, 『서사론』(김병옥, 오연희 공역, 형설출판사, 1993)을 참고.

4) F. Jameson, *The Political Unconscious* (Cornell Univ. Press, 1981), pp. 19-20. 맑스에 의하면, 그 이야기의 플롯은 필연의 영역으로부터 자유의 영역을 향한 집단적 투쟁이다.

5) H. White, “figuring the nature of the times deceased: Literary Theory and Historical Writing”, R. Cohen(ed.), *The Future of Literary Theory* (Routledge, 1989), pp. 19-20.

6)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같은 책, 69-79쪽.

모든 진실은 담론의 구성물에 불과하며, 모든 언어적 표상은 불확정적이라는 주장과 무관하지 않는 듯하다.⁷⁾ 그렇다면, 서사라는 용어의 대중적 사용은 현대문화의 인식론적 위기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⁸⁾ 말하자면, 지식 가능성에 대한 신념이 훼손될 때 남는 것은 서사이며, 어떤 담론이나 지식을 ‘서사’나 ‘이야기’라 지칭하는 것은 그 진리 주장을 의심한다는 뜻이다. 과학의 서사라는 말처럼, 과학적 담론은 현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한다는 것이다.

순수 상태의 사실 그 자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역사적 진실의 구성성은 독자에게 해방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주장은 기존 질서나 체제의 권력에 봉사하는 서사의 물질성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⁹⁾ 그러나 식민지 하의 착취를 경험했고, 죽음의 집단수용소를 견뎌온 이산(離散, diaspora)의 강제를 겪은 사람에게 진리의 구성성이란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논리에 불과할 수도 있다. 부정한 권력에게 방어논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7) 이런 주장에 따르면, 주체로서의 존재는 미망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체의 중심성, 개별성, 정체성, 연속성 등도 부정된다. 개인은 행위주체가 아니라 언어규칙을 따르는 술부의 주어일 뿐이며, 텍스트와의 관계에서 작가의 존재도 의심된다. 그 결과, 텍스트의 불확정이라는 것이 강조되는데, 이는 첫째, 텍스트간, 발화간 관계의 결정불가능성을 의미하는 텍스트 내적 불확정성, 둘째, 텍스트와 지시대상 사이의 결정불가능성이라는 뜻의 텍스트 외적 불확정성으로 이해된다. 전자는 모든 텍스트들이 다원적 복수적인 상호관련 속에 있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는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자의적 관계 때문에 확정적 의미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C. Nash, “Slaughtering the Subject: Literature’s Assault on Narrative”, C. Nash(ed.), *Narrative in Culture* (Routledge, 1990), pp. 203-205.

8) Marie-Laure Ryan, “Narrative”, D. Herman, M. Jahn, and Marie-Laure Ryan(eds.), *Routledge Encyclopedia of Narrative Theory* (Routledge, 2008), p. 344.

9) 역사기술에서 이야기의 복권을 추구한 노에 게이치는 ‘역사의 종언’을 대문자로서의 역사, 즉 기원과 텔로스를 중심으로 한 역사철학의 종언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완결된 역사 전체를 상정하는 실체론적 역사철학 대신 분석적 역사철학을 내세우고, 실제 사건은 인간의 기억과 이야기행위(narrative act)를 통해 역사적 사건으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한다. 새로운 이야기행위는 과거의 사건을 수정, 재구성할 수 있으며, 역사기술은 해석학적 변형이요 과거의 제작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문맥과 관계로부터 독립한 ‘사실 그 자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야기행위를 멈추지 않는 한 역사에는 완결도 종언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 노에 게이치, 『이야기의 철학: 이야기는 무엇을 기록하는가』(김영주 역, 한국출판마켓팅연구소, 2009), 12-17쪽.

III. 구조주의 서사학의 한계

서사가 문학분과를 뛰어넘고 언어매체와 텍스트기반으로부터 해방되면서 서사학의 이론, 방법, 범위와 대상을 두고 다양한 견해가 제출되고 있다. 특히 독자의 해석학적 역할, 화자와 청자의 미시맥락적 공조, 서사의 생산과 수용에 관여하는 사회문화적 역사적 맥락에 관심을 보인 것은 특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과학문의 서사적 전회는 언어구조와 텍스트 내용에 초점을 둔 기존 서사학, 곧 구조주의 서사학에 여전히 의존한다.

통상 서사학 또는 서술학으로 번역되는 *narratology*는 구조주의에서 발단된 이야기 이론이며 토도로프가 『데카메론의 문법』(1969)에서 주조한 용어이다. 토도로프는 서사학을 서사 자체의 요소와 구조에 대한 체계적 기술을 제공하려는 과학적 프로젝트로 여겼다. 이후 구조주의 서사학은 개별텍스트나 특정 역사시기를 초월하는 서사의 고유한 속성이나 변별적 자질, 모든 서사의 필요충분조건에 대한 탐구로 이해된다.

서사는 이야기와 이야기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야기(*story*)는 누구에게 일어난 일, 사건, 상황을 뜻한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누구에게 무엇이 일어났는가?’의 문제이다. 다른 한편, 이야기하기(*telling, discourse*)는 일어난 사건을 전달하는 방식과 관련된다. 즉 말하기는 ‘사건을 어떻게 말하는가?’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구조주의적 서사분석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된다. 그 하나는 언어의 소통기능을 증시하는 언술지향 서사학(*discourse narratology*)이고 다른 하나는 언어의 재현기능을 강조하는 이야기지향 서사학(*story narratology*)이다.¹⁰⁾

10) 오닐은 이를 각각 언술우위론과 스토리우위론으로 구분한 바 있다. 스토리우위론은 같은 스토리를 여러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언술 이전에 스토리가 존재하며 언술은 그 스토리를 담는 그릇에 불과하다는 스토리중심이론이다. 다양한 매체가 지닌 고유한 특질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스토리중심이론은 내용과 형식의 이분법을 가정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언술우위론에 따르면 상이한 제시 방법은 상이한 스토리 생산한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언술에 종속적이며 언술이 없으면 이야기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언술중심이론이다. 이런 입장은 상이한 매체의 고유한 제시방법을 주목하는 것이므로, 언술중심이론은 내용과 형식의 분리불가능을 가정한다고 할 것이다. Patrick O'Neil, *Fictions of Discourse: Reading Narrative Theory* (Univ.of Toronto Press, 1994), pp. 6-29.

1. 언술의 우위와 언어게임

언술지향 서사학은 언술방식과 매체가 스토리 내용을 결정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말하기 이전에 사건이 있었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언술은 서사의 근간이라고 주장된다. 말하기는 누군가가 누군가를 향하거나 위해 말해지는 소통으로 간주될 수 있고 따라서 서사의 변별성은 서술자의 매개기능, 곧 말하는 방식 혹은 서술기법에 있다는 것이다.

(1) 나는 그를 때렸고, 그는 나를 쳤다.

(2) 그는 나를 때렸고, 나는 그를 쳤다.

위 예문에서 두 사건은 서술의 순서를 역전시킴으로써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말하자면, 스토리는 언술에 의존하며 언술이야말로 스토리를 생산한다고 하겠다.

언술지향 서사학은 언술기법뿐 아니라 사건을 조직하는 방식, 즉 플롯의 구성에서 서사의 고유한 자질을 확인한다. 언술우위론에서 플롯은 러시아형식주의자의 수제 개념에 상응한다. 말하자면, 시간적 연속과 인과적 질서를 전복함으로써 이야기의 재료(파블라)를 낯설게 재구성(수제)하는 것이 플롯이라는 것이다. 사건의 배열을 전적으로 기법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형식주의자에게 수제로서의 플롯은 개별 작가의 창안물로 간주된다. 그래서 사건(파블라)보다 배열이 더 중요하며 심지어 배열은 사건(경험과 행동)과 무관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친숙한 것을 낯선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예술의 핵심이며 따라서 예술은 삶의 표현이 아니라 경쟁적인 이본과의 싸움, 선행하는 서사관습에 대한 유희이기 때문이다.¹¹⁾ 플롯에 대한 형식주의적 이해가 서술의 역전이나 선행 서사컨벤션의 패러디를 고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바로 이런 관점에서 서사는 현실로부터 무한 퇴행하는 언어게임으로 간주된다. 언어게임은 외부 세계 및 인간 자신의 변화에 부응할 필요보다 이야기하기의 자유로운 변형과

11) M. Roemer, *Telling Stories*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1995), pp. 32-40, 69-72.

새로움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그 낯설게하기는 새로운 삶보다 작가의 자유를 드러내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¹²⁾

2. 이야기의 우위와 사건성의 맥락

언술 이전에 스토리도 없다고 보는 언술중심의 관점에서, ‘말해지지 않은 이야기’는 모순어법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재미난 이야기 해주세요!’라거나 ‘내가 살아온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라고 할 때, 아직 말해지지 않은 그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는가?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야기할 만한 가치를 지닌 선행사건이 있다는 뜻이고 또 다양한 형태의 비언어적 서사가 있다고 보면, 이야기의 존재론에서 서술자의 존재나 언술방식은 선택사항일 것이다. 그렇다면, 스토리중심의 서사론이 성립될 수 있겠다.

언술우위론이 서사의 변별적 특성을 포착하기 위해 매개성 혹은 서술자의 역할을 강조한다면, 스토리우위론은 사건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말하자면 사건을 스토리 혹은 서사로 만드는 것이 무엇이나는 것이다. 이야기우위론에 따르면 스토리의 본질적 특징인 사건은 최초 균형상태의 파괴, 즉 상황변화이다. 상황변화는 스토리에 대한 최소규정이라 할 수 있는데 연속과 변형을 서사의 두 원리로 지목한 토도로프는 서사전개의 기본적 구조요소로 3단계를 제시한다. 즉 ‘최초의 균형 → 불균형 → 회복된 균형’이 그러하다.¹³⁾

그런데 이야기중심이론이 제시한 서사의 심층구조나 이야기문법은 어떤 매체로부터도 독립한 텍스트 추상물이다. 그 구조적 추상에서 인물은 서사 기능단위(actant)로 대체되기 때문에 이들 속에 심신을 지닌 구체적인 인간이 놓일 자리가 없다. 더구나 ‘철수는 밥을 먹었다’와 같은 평범한 사건이 서사의 변별적 자질을 보인 증거라 하기

12) 이에 대해 황국명, 『삶의 진실과 소설의 방법』(문학동네, 2001), 351-358 쪽 참조.

13) 서사가 조직되는 규범적 도식은 다양한 형태로 모델화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1)기존 질서의 혼란, (2)질서 회복을 위한 발신자/주체 사이의 계약, (3)주체가 시도하는 일련의 모험, (4)발신자에 의한 보상이나 징벌로 도식화하거나, (1)무엇을 성취하기 위한 주요인물의 출발, (2)일련의 행동과 닥쳐온 위기, (3)목적 달성 등으로 모델화할 수 있다. 혹은 더 단순하게 ‘문제 → 해결’로 도식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렵다. 그래서 슈미트는 상태변화가 사건으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 부가적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가 들고 있는 부가 범주는 (1)적절성(상태변화는 서사세계의 본질적 부분) (2)예견불가능성(기대한 것, 세계의 일반적인 질서 원리로부터의 일탈하는 의외성) (3)효과(캐릭터나 서술된 세계에 대한 변화의 함의), (4)불가역성(변화 결과의 지속성과 회복불가능성) (5)비반복성(변화의 단수성) 등이다. 그러니까 슈미트가 서사의 변별적 특성으로 들고 있는 사건은 판에 박힌 일상사가 아니라 일탈, 비상한 사건, 특별한 변화인 셈이다. 이를 두고 그는 사건성(eventfulness)이라 하는데 이는 중대한 사건 혹은 사건의 중대성이라 이해할 수 있다.¹⁴⁾

슈미트의 주장에서 흥미로운 것은 사건의 중대성은 텍스트 내적 구조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의존한다는 지적이다. 달리 말하면 어떤 상태변화를 중대하다고 여기는 것은 수용자의 해석학적 결단이라는 뜻이다.¹⁵⁾ 사건성을 두고 텍스트 외적 맥락에 의존한다고 함은 문화적 고유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구조주의적 보편구조론의 한계를 돌파한다. 그러나 사건성 혹은 서사성이 맥락의존적인 것이라면 무수한 문맥에 놓인 이야기 모두를 ‘서사’라는 동일한 범주에 넣을 근거가 없다.¹⁶⁾

14) 서사성은 정상적인 것으로부터의 일탈 혹은 특별한 상태변화에 의존한다고 여겨진다. 이처럼 의외성, 예외성 등의 자질을 지닌 사건을 사건성, 즉 사건의 중대성, 사건의 특별하고 비상함이라 한다. 비정상, 의외, 예외, 특수, 일탈, 위반, 위협, 전복이야말로 사건을 사건답게, 이야기를 이야기답게 만든다는 뜻이다. 그런데 사회적 일탈로 사건성이 확보된다는 것은 세계를 닫힌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Gary Saul Morson, *Narrative and Freedom: The Shadows of Time* (Yale Univ. press, 1994), p. 22.

15) 사건성은 수용자의 개별적 판단뿐 아니라 확립된 규범체계, 사회와 현실의 본질에 대한 사상, 장르고유의 관습에 의존하며, 상이한 심성과 문화 사이에 역사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W. Schmid, "Narrativity and Eventfulness", T. Kindt and Hans-Harald Muller(eds.), *What is Narratology* (Walter de Gruyter, 2003), pp. 24-29.

16) 서사론을 개관한 프린스는 서사의 고유한 변별성, 곧 서사성을 상태변화에 둔다. 그는 서사성이 문화에 의존하고 맥락에 구속된다면, 모든 것이 서사이며 동시에 어떤 것도 서사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결국 ‘서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서사학의 영역이 결정된다는 것인데, 그는 구조주의 서사학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다양한 서사론(narratologies)을 응용서사학, 말하자면, 정통 서사학이 아니라 서사학적 연구로 간주한다. G. Prince, "Surveying Narratology", T. Kindt and Hans-Harald Muller(eds.), 같은 책, pp. 1-11.

IV. 서사의 가치와 삶

언술을 강조하는 구조주의 서사학에서 독자(청자)보다 서술자가 우선한다. 서술자가 제시하는 설명이나 정보가 없다면 독자가 인물행동의 가치를 해석하거나 그 영향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프린스의 지적처럼 독자는 전적으로 서술자에게 신세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용의 거시적 맥락을 지적하였거니와, 천일야화의 경우처럼 청자는 서술자에게 자신의 기대와 욕망을 제시함으로써 이야기의 결과를 결정할 수 있다. 또 관객의 시간을 기계적으로 통제하며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영화와 달리 문자텍스트는 독자의 속도에 따라 소비된다. 이런 점에서 작가에겐 독자의 전행과 변덕을 제한하거나 서사이해를 결정할 수단이 없다. 그렇다면 서사는 독자에게 어떤 가치를 지니며 그것은 독자의 삶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살펴볼 만하다.

1. 인식과 서사적 상상

구조주의 서사학을 비판하는 학자들은 서사를 결정하는 요소나 속성보다 서사가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탐구한다. 그러나 서사의 의의나 가치에 대한 무수한 입론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 이론적으로 공통될 만한 기반은 빈약한 편이다. 그나마 공통점을 찾자면 서사의 인식적 가치이다. 서사는 복잡다양한 경험에 질서를 부여하고 삶을 일관성 있게 형상화하며 이로써 삶과 경험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인식론적 범주라는 것이다.¹⁷⁾ 말을 바꾸면 시간, 과정, 변화에 대처하는 인간의 기본 전략으로서 서사는 혼란스럽고 가변적인 현실에 질서를 부여하려는 지적 활동의 수단이며 동시에 기록된

17) story는 ‘아는 자’라는 희랍어 *hístōr*와 관련된 라틴어 *historia*에서 유래하며, *historia*는 ‘보다’, ‘지각하다’, ‘알다’라는 뜻을 지닌다. narrative의 어원적 의미는 *narrare*, 즉 ‘관계하다(to relate)’이며, 그 라틴어의 뿌리는 희랍어 *gno*, 즉 ‘알다(to know)’라고 한다.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연결하는 것이며, 어원적으로 서사는 아는 바(knowing)를 말하기(telling)라고 할 수 있다. M. Roemer, 같은 책, pp. 3, 11. R. Hodge, *Literature as Discourse* (Polity Press, 1990), p. 173.

서사의 의미를 재구성함으로써 삶과 세계를 이해하려는 지적 활동의 대상이라는 뜻이다.

허만의 지적처럼 서사가 삶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면서 그 자체 이해의 대상이라면 서사의 생산과 수용은 상호작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폴 리콥르에게 이 관계는 해석학적 순환과정으로 이해된다. 리콥르의 서사해석학에 따르면, 서사는 존재의 시간성에 대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정체성을 발견케 하는 수단이다. 그 과정은 (1)전형상화(prefiguration), 즉 삶이라는 텍스트에 대한 전이해 (2)형상화(configuration), 즉 서술행위로써 질서와 형상을 부여하여 이야기로 엮어내기 (3)재형상화(refiguration) 곧 독자의 독서행위를 통한 재구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¹⁸⁾

텍스트의 재형상화, 재구성 과정에서 독자는 현실세계와 작품세계를 결합하고 거기서 자신의 정체에 대한 전체적 인식, 즉 서사적 정체성(narrative identity)을 구성한다. 서사적 정체성은 독자로 하여금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살아왔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물음에 답하게 만든다. 텍스트의 재형상화를 통해 독자는 인간경험의 숨겨진 차원을 발견하고 자신의 세계관을 변형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서사해석은 독자가 현실과 윤리적으로 관계하게 만드는 가치판단을 담는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리콥르가 지적하듯, 독서는 중대한 사건이고 생산적 상상이라 할 만하다.

물론 독자가 서사텍스트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과 세계를 재구성하는 것을 두고 르네 지라르처럼 타인을 모방하는 허위 혹은 보바리즘이라 비판할 수 있다. 사이드(Said) 또한 텍스트의 권위에 의존하는 인간의 보편적 결합을 비판하면서 돈키호테를 예로 삼은 바 있다.¹⁹⁾ 그러나 리콥르가 현실세계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작품의 재구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또 상상력에 대한 진화론적 가설에 의하면 인간은 상상력을 심적 대응물로 활용함으로써 당면한 위기를 해소하고 최적자로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18) 폴 리콥르, 『시간과 이야기 1』(김한식, 이경래 역, 문학과지성사, 1999), 특히 2장, 3장 참조. 리콥르의 서사해석학에 대한 친절한 설명은 김동윤, 「아리스토텔레스의 미메시스 개념과 허구적 이야기의 역동적 해석학-폴 리콥르의 문학기론을 중심으로」(『작가세계』, 1995년 통권 25호), 김한식, 「폴 리콥르의 이야기 해석학」(『국어국문학』, 2007년 146호), 윤성우, 「폴 리콥르의 철학」(철학과현실사, 2004)을 참조.

19) 르네 지라르는 모델들의 욕망을 모방하는 것, 즉 타인을 따르는 욕망을 모방욕망, 가까욕망이라 하고, 이를 보바리즘이라 칭한다. 르네 지라르,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김치수·송의경 역, 한길사, 2002), 43-44쪽. Edward W.Said, 『오리엔탈리즘』(박홍규 역, 교보문고, 1991), 160-163쪽.

상상력은 타인의 경험을 거울삼아 낯선 상황에 대처하고 이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의 보편적 능력인 셈이다. 역지사지(易地思之)라고 하거니와 타인의 시선과 입장에서 자신에 대해 상상하는 것은 낯선 것을 자신의 내부로 통합하는 것과 같이 모험적이고 실험적이다. 이런 상상을 서사적 상상이라 할 수 있다. 서사적 상상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이야기의 인물로 여기고,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추론하며, 상황과 사건을 전달하고, 누가 무엇에 책임이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서사는 독자가 자신을 깨닫고 삶을 배우는 조건이라 할 것이다. 더구나 상상으로 타자의 세계에 거주함으로써 독자는 존재에 대한 보편적 이해와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인식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2. 플롯(구조)에 대한 두 가지 시각

이미 오래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처음, 중간, 끝이라는 완결적 구조를 플롯이라 말한 바 있다.²⁰⁾ 서사를 인식의 대상이며 수단으로 보는 관점도 이런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텍스트의 형상화와 재형상화에 작동하는 질서의 원리, 즉 플롯(구조)이 실제 삶과 어떤 관계에 놓이느냐는 여러 모로 흥미할 만하다.

첫째, 플롯의 질서는 혼란스러운 현실을 재배열하고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작가에 의해 ‘발명’된 질서일 수 있다. 서사의 인공적 질서가 삶을 이해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은 삶이 서사를 모방한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 이런 입장은 서사의 질서와 삶의 무질서 사이의 불연속성, 서사형식과 삶의 형식간의 차이와 비동형성을 가정한다. 말하자면 서사의 질서, 플롯은 외적 현실의 속성이 아니라 우리의 주관적 상상과 소망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즉 불연속적인 것을 종합하여 질서를 부여하는 서사는 가상(as if)의 영역에 있으며, 현실행동이나 경험으로부터 직접 획득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리코르의 주장처럼 서사형식이 본질적으로 부조화하는 시간 경험에 조화를

20)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손명현 역, 박영사, 1975), 68쪽.

제공하고 인간세계의 불연속적 이질적 요소들을 의미 있는 전체로 종합하며 이로써 세계에 새로움을 가져오는 것이라면 리코르에게 플롯은 발명품임이 분명하다.²¹⁾ 서사의 인식론적 가치가 삶으로 전이된다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겠지만,²²⁾ 질서원 리로서의 플롯을 경험세계와 엄격하게 분리된 기법으로 간주할 때, 그 기법의 이데올로기적 내용을 회의하기 어려움은 문제라 할 것이다.²³⁾

둘째, 플롯의 질서는 현실의 혼란스런 표층이 아니라 그 심층에 놓인 질서를 ‘발견’한 것일 수 있다. 서사는 현실의 심층에서 발견한 질서를 반영하며 이는 서사가 현실을 모방한다는 것과 같다. 이런 입장은 서사와 구체적인 삶 사이의 연속성, 서사형식과 경험형식 사이의 동형성을 가정한다. 말하자면 서사구조는 우리의 시간경험, 사회적 실존, 일상경험과 행동에 빠져있으며 역사적 허구적 서사는 현실의 왜곡이나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의 주요 특징을 확장하고 형상화한 것이라 뜻이다.²⁴⁾ 따라서 플롯의 전개 혹은 서사적 운동은 삶으로부터 예술로 전이된 것이지 경험을 조작하기 위해

- 21)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롯을 사건의 조직, 즉 부분들의 배열과 결합이라고 말하고 있어 플롯에 대한 형식주의자의 정의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가 플롯을 뜻하며 사용한 미토스(mythos)는 스토리텔러 및 그가 만드는 모든 배열보다 앞서 존재한다. 대부분의 비극이 서사시의 옛이야기를 다시말하기인 것처럼, 플롯은 물려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미토스, 즉 플롯은 스토리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미토스를 ‘줄거리 구성’ 혹은 플롯짜기(emplotment)라고 이해한 리코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미토스를 형식주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 지적된다. M. Roemer, 같은 책, pp. 39-44. 비극의 혼이라고까지 말해진 플롯이 공작하듯이 사건을 면밀하게 엮어짜는 것이고, 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위치를 옮기면 전체가 무너진다고 할 때, 이는 낯설게하기나 서술의 역전과 같은 형식주의적 플롯일 수 없다. 김용석, 같은 책, 37-41쪽.
- 22) 커머드는 허구적 종결이 사용되지 않으면, 우리는 삶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프랭크 커머드, 『종말의식과 인간적 시간』(조초희 역, 문학과 지성사, 1993), 특히 1,2장 참조.
- 23) 현실에 서사형식을 부여하는 역사담론의 서사화를 다루면서 화이트는 서사형식을 중립적인 담론형식이 아니라 특정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함의를 지닌 인식론적 선택과 관련시킨다. 실제 사건을 제시하기 위해 서사형식의 특징적 요소들, 예를 들어 중심주제, 초중중, 급변, 서술목소리, 인과관계 등이 동원될 때, 그 서사화된 담론은 사건들에 환상적인 일관성을 부여하고, 몽환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사는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 담론의 형식이 아니라 이미 그것의 구체화에 앞선 내용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것이 ‘형식의 내용’이다. 화이트의 이런 입장은 서술담론에 대한 비판, 즉 실제 삶은 잘 만들어진 이야기처럼 형식적 일관성을 지닌 것으로 제시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이해된다. H. White, *The Content of the Form* (Johns Hopkins Univ. Press, 1987), pp. 1-25.

- 24) D. Carr, *Time, Narrative, History* (Indiana Univ. Press, 1986), pp. 10-16.

예술가가 사용하는 미적 창안물일 수 없다.²⁵⁾ 루카치가 소설 형식의 추상성을 면하기 위해 현실에서 객관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형식으로 전기를 강조한 근거도 여기에 있다. 또 그는 플롯이란 작가 개인의 순수한 창안물이 아니라 작가가 현실에서 ‘찾고 발견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즉 플롯은 초개인적인 것이며 사회역사적으로 ‘생산된’ 구조요소라는 것이다.²⁶⁾

질서원리로서의 플롯에 대한 두 이해는 매우 상충된 것이어서 이론적 종합을 모색하기 쉽지 않다. 끝없는 이야기(endless story)가 종결이 없는 서사의 성립불가능에 대한 비유라면, 서사는 불가피하게 구조적 편향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시간연속과 인과관계라는 완결적 구조가 그런 편향성에 속한다. 그렇다면 개인의 삶에도 그런 편향적 구조 혹은 종결이 있을 것인가? 살아있는 나에게 나의 죽음은 아니라 타자의 죽음만이 종결적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나의 삶은 열린 과정이며 따라서 완결적 서사구조와 비동형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²⁷⁾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상상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며 때와 장소를 모를 뿐 필멸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서사형식과 삶의 형식 사이에 동형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삶을 어떻게 보느냐에 있을 것이다.

25) B. Hardy, "An Approach through Narrative", M. Spilka(ed.), *Towards a Poetics of Fiction* (Indiana Univ.Press, 1977), p. 31.

26) 게오르그 루카치, 『소설의 이론』(반성완 역, 심설당, 1985), 97-99쪽, G. Lukács, *The Historical Novel* (Penguin Books, 1976), pp. 132-133.

27) Morson에 의하면, 서사구조는 처음, 끝을 부여함으로써 경험의 연속성을 파괴하고 다양한 의지와 목적을 단일한 패턴으로 환원하며, 불가피성을 부여함으로써 시간을 폐쇄한다. 서사구조와 달리, 경험적 삶은 완성된 생산물이 아니라 대안적 가능성들로 열려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사건의 종결이란 외부적 관점, 예를 들어 작가의 특권으로부터 유래하는 인공품이다. Gary Saul Morson, 같은 책, pp. 38-39.

V. 새로운 이야기주체와 마이너리티서사

1. 능동적 서술주체

앞서 스토리중심의 서사학이 이야기의 근본구조나 문법을 탐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 모델에서 작중인물 혹은 주인공은 자발적으로 모험에 뛰어들든 능동적 행위주체처럼 보인다. 그러나 불균형, 무질서와 혼란, 부재와 결핍이 없다면 과연 이들이 위협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 모험에 나설 것인지 물을 수 있다. 아마 인물 누구도 행동에 뛰어들거나 상실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자발적인 모험가라기보다 자신의 외부에서 들이닥친 사태에 대해 피동적으로 반응할 뿐이다. 더구나 그들 행위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잃었던 균형과 질서의 회복에 있다는 의미에서, 그들은 보수적이기도 하다. 술한 역경을 견디며 오디세우스가 돌아가고자 한 곳은 자신이 떠나온, 그러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고향집이 아니겠는가.²⁸⁾ 연술우위론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삶의 문제가 없다면 서사도 존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삶의 주인공이라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결핍과 상실, 억압과 폭력, 혼란과 불안에 떠밀려 살아가는 것이지 상황과 무관하게 자유로운 의지로 결단하고 모험을 선택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결단을 한다면 그것은 존명을 건 위험한 결단일 것이며,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운명적 선택일 것이다.²⁹⁾ 자유의지를 지닌 주체의 결단과 선택이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생존을 복돋우기 위한 계몽사상은 되겠지만, 서사의 영역은 아닌 듯하다. 서사는 진공상태에 있는 듯 상황의 억압을 받지 않는 인간에게 흥미를 갖지 않을 것이며, 전적으로 자유로운

28) 심지어 영웅의 행동도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여된 과업이요, 의무이다. 그는 운명적으로 불가피하게 행동하게 된다. 그는 삶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것이지 위대한 모험이나 성가신 일을 애써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M. Roemer, 같은 책, pp. 5-6.

29) 도정일 교수의 논지에 의하면, 인간 삶 자체가 “한 편의 이야기”이다. 즉 우리는 추구서사의 주인공처럼, 삶의 끝맺을 짜고 그 속의 주인공이 되어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모험에 뛰어들든 것이다. 도정일, 「서사론-무엇 하자는 것인가」(『포에티카』, 1997년 가을호), 256-260쪽.

인간은 서사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을 것이다.

서사의 인식 가치를 지적하였거니와 모든 인식은 경험, 즉 과거와 연관을 갖는다. 이런 의미에서 서사는 언제나 작중인물의 전사(前史)에서 자라나온다. 과거와 무관하다면, 경험에 대한 기억이 부재한다면, 우리는 이야기의 주인공일 수 없다. 그러니까 서사의 주인공일 수 있음은 우리가 상실, 결핍, 억압, 폭력에 노출된, 상처 입은 자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과거 있는 자’만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상황에 떠밀리는 피동적 삶이긴 하나, 그러나 우리는 그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능동적 주체이다.³⁰⁾ 서사는 과거 있는 자, 생의 고통을 지닌 자들이 서로 교감하는 장소이며, 이런 교감을 통해 우리는 쓸쓸한 삶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다. 이야기를 좋아하면 가난하게 산다는 민속금기담이 있지만, 아마 가난하고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것이 실제에 가까울 것이다. 지옥에 있는 자만이 천국을 꿈꾸는 것처럼. 이야기꾼의 원형인 어린이가 존재의 위기를 견디기 위해 가족로망을 꾸며내는 것처럼.

2. 새로운 이야기, 마이너리티서사

능동적인 서술주체가 될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다거나 말하고 싶은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삼국유사의 신라 48대 경문왕조에 수록된 복두장이 설화가 암시하듯, 인간의 역사는 이야기를 억압하려는 권력과 이 억압에 맞선 저항의 역사일 수 있다. 누가 무엇을 기억하고 이야기할 것인가의 문제는 스토리텔링에 대한 사회문화적 제한을 숙고하게 만들며, 서사와 지식과 권력 사이의 내밀한 관계를 암시한다. 그래서 서사적 설명을 성립시키는 요소가 화자와 청자 사이의 인칭적 관계와 상호작용이라면, 발화의 포지션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다.³¹⁾ 말하자면, 누가

30) 생애담은 정체감을 유지 발전시키고, 삶을 살아갈 안내가 되며, 혼란스런 삶의 사건에 질서를 부여하고, 능동적인 서술자의 역할로 힘(power)을 획득하게 만든다고 지적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하기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사건일 수 있다. L. L. Viney, *Life Stories: Personal Construct Therapy with the Elderly* (John Wiley & Sons, 1993), pp. 2-3.

무엇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는가의 문제는 정치경제적 권력의 문제라는 뜻이다.

특히 비허구적 서사는 인간의 삶과 관련하여 암묵적이면서 치열한 경쟁을 펼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소설이 취급한 어떤 사건을 다른 소설이 논박하거나 반증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 허구인 까닭이다.³²⁾ 그러나 자전적인 개인서사의 경우 동일한 사건을 두고 비교, 반증하는 등 경쟁적 대안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 이처럼 같은 사건을 대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복두장이 설화가 암시한 것처럼, 이 세상에는 드러난 이야기뿐 아니라 말해지지 않은 이야기 혹은 숨겨진 이야기(untold story)가 무수하게 존재한다.³³⁾ 마이너리티서사, 즉 사회적 약소자들의 이야기가 그것이다.

마이너리티는 자원, 지식, 기술, 조직이 없는 정신적 물질적 소외계층, 사회적 억압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하위주체(subaltern)들이다. 예를 들어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탈북자, 노년층, 말기환자, 성피해여성, 아동 및 청소년, 저소득층, 노숙자, 장애인, 성적 소수자 등이 그러하다. 아직 충분한 무대를 얻었다고 할 수 없지만 이들 마이너리티는 우리 시대의 새로운 이야기꾼이다.

마이너리티를 이야기주체로 볼 때, 단일한 전체로서의 한국문화란 의심스러운 범주임이 분명하다. 이들 소수자들은 한국문화의 복합성을 형성하거나 한국사회의 복합적 문화를 구성하는 주체인 까닭이다. 이들은 발화의 포지션 때문에, 다시 말해

31) 노예 게이치, 같은 책, 302-305쪽.

32) 물론 작품 속의 특정 사건은 실화에 근거할 수 있고, 이 때문에 특정 독자의 격렬한 반응을 불러오기도 한다. 조정래의 대하소설 『태백산맥』이 법정시비로까지 간 것도 이런 사정에 말미암을 것이다. 『태백산맥』에 대한 우익적 격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두 해당 작품을 읽었을 것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읽었다면, 조정래야말로 우리 소설사에 전례가 없을 정도로 폭넓은 독자를 지닌 행복한 작가일 것이다. 읽지 않았다면, 그 독자에게 『태백산맥』은 아직 언술되지 않은 것, 작가의 의식 속에만 존재하는 것, 부재하는 작품과 다를 바 없다. 부재하면서도 누군가의 가슴에 뜨거운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야기의 힘을 역설적으로 웅변하지 않겠는가.

33) 숨겨진 이야기란 처음으로 서사화되는 이야기, 자신에게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 아주 사적인 관계에서만 말해진 이야기, 공적으로 말하고자 하였으나 억압된 이야기, 말로 다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다. Michael Hanne, *The Power of the Story: Fiction and Political Change* (Berghahn Books, 1994), pp. 10-14.

자신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에 언제나 동화나 배척의 대상이 된다.³⁴⁾ 오늘날 한국사회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디아스포라, 결혼이주민과 이주노동자 또한 스토리텔링의 경쟁에서 보람없이 소모될 가능성이 있다.³⁵⁾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고통과 불행의 상당수는 힘 있고 가진 자들이 늘어놓은 크고 많은 이야기에 기인한다. 마이너리티서사는 이들 ‘큰이야기’에 의해 억압된 ‘작은 이야기’들, 밑으로부터의 목소리, 잃어버린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이야기를 공적 차원에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서사론이 관심을 가져야 할 새로운 방향이다. 사회적 약소자, 하위주체, 이산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수사적인 립서비스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서사론은 문화의 절대적 차이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경험을 지향해야 하고,³⁶⁾ 지식인이나 문화전문가의 소수자에 ‘대한’ 서사가 아니라 소수자에 ‘의한’ 서사, 개인의 생애담(life story)이나 일상의 자연발생적인 서사를 탐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³⁷⁾

34) 근대성의 전통 속에서 ‘우리’공동체는 제3자를 동화하거나 배척하는 폭력이었다고 이해된다.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같은 책, 231-234쪽.

35) 이산(diaspora)은 유대인과 관련된 고전적 사례를 넘어 분석을 위한 개념 및 사회적 실천으로 확산되고 있다. 다른 민족이나 신앙들 사이에 소수자로 살고 있는, 물리적으로 분산된 종교집단을 지칭하였으나, 8,90년대 이후 이산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이산에 대한 개방적 정의는 민족적 인종적 소수집단이면서 고국과 연관을 유지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범주적 정의는 민족 대다수의 이산에 한해서 참된 이산이라 하며, 80년대 이후의 포스트모던한 정의는 역설적 정체성, 이중심성, 혼종성 등을 강조한다. 특히 포스트모던 정의는 민족국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귀향을 이산에 대한 부정으로 간주한다. 이산의 기본 이해를 위해 Stéphane Dufoix, *Diasporas* (Univ.of California Press, 2008)를 참조.

36) 세계화의 맥락에서 종교, 문화적 정체성, 민족, 지역, 국가 등 모든 특수주의 범주가 혼종화되고 이산이 증대한다고 지적된다. 이런 혼종화, 이산, 다문화 현상은 매우 상반된 해석을 얻고 있다. 한편으로 이산적 정체성이나 혼종적 다문화는 문화적 성찰과 변화의 조건을 창조하는 일탈적 힘이라고 이해된다. 말하자면, 인간을 민족국가, 근대성, 거대자본주의로부터 해방시키는 새로운 역동적 문화원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들 현상은 세계시장의 수평적 동시성을 반영할 뿐, 수직적으로 불평등한 상호관계를 용인한다고 지적된다. 특히 인종적 민족적 근본주의를 비난할 근거가 됨으로써 혼종성, 이산, 다문화주의는 세계체제에서 정치경제적 권력의 원천이 된다고 비판된다. 이런 비판적 입장에 대해 Pnina Werbner and Tariq Modood(eds), *Debating Cultural Hybridity* (ZED Books, 2000), M. M. Kraidy, *Hybridity, or the Cultural Logic of Globalization* (Temple Univ. Press, 2005)을 참고할 만하다.

37) 지식인이나 문화전문가의 문화생산물뿐 아니라 뉴스매체, 공익광고, 대중문화 등이 마이너리티를 어떻게 서사화하며, 이는 어떤 이데올로기적 담론효과를 갖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중요한 것은 개별 문화의 전체가 아니라 소수자가 살았거나 살고 있는 사회현장인 까닭이다.³⁸⁾

기존 권력관계가 배제한 자료나 감추고 싶은 사건을 포함하기 때문에 마이너리티서사는 기존 질서와 문화에 강력한 충격을 가하고 정치적 변화까지 유발할 수 있다. 또 고통스런 경험에 대한 글쓰기는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의 회복, 정서적 재활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³⁹⁾ 이야기하기와 정신적 육체적 건강 사이의 긍정적 상호관련에 이야기치료 혹은 서사의학의 근거도 있다.

사회적 약소자의 개인서사는 경험에 치중하는 자연서사인 까닭에 기존의 구조주의 서사학이나 서사해석학이 해명하려는 서사의 변별적 자질을 결여하기 쉽다. 오히려 정교한 플롯의 목적론적 일관성을 결여한 것이 자연서사의 특징일 수 있다.⁴⁰⁾ 생애담의 경우, 경험한 사건을 얼마나 일관되게 통합하는가는 이야기의 좋고 나쁨을 판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특히 맥락, 즉 특정한 배경에서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 방식으로 이야기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⁴¹⁾ 따라서 약소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훌륭한

문화생산물은 마이너리티를 타자화하는 우리의 시선이 되기 쉽고, 이런 시선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획일화된 인식이나 고정관념을 낳으며, 하위주체로 하여금 자신들의 경험을 표현할 수 없게 억압한다.

- 38) 그래서 문화적 가치와 규범의 차이는 어떤 사회의 이주민이 겪는 실패나 성공을 설명하기 위해 의지할 만한 수단일 수 없다고 지적된다. Hans-Rudolf Wicker, "From Complex Culture To Cultural Complexity", Pnina Werbner and Tariq Modood(eds), 같은 책, pp. 38-41.
- 39) 유목(nomad)과 이산(diaspora)은 때때로 교환가능한 비유나 실천처럼 취급되지만, 이는 다소 불만스럽다. 제약 없이 열린 공간에 살고 있거나 동화를 거부하고 차이를 즐기며 문화적 카멜레온처럼 여러 정체성을 찾아 방랑한다는 유목적 삶과 달리, 이산이주민은 한 지점에서 불확실하고 예측불가능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며, 그 이동은 위험과 고통이 수반된, 불가피한 선택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M. M. Kraidy, 같은 책, pp. 139-141.
- 40) 플루터덕을 따르면, 생애의 경험에 치중한 자연서사는 플롯이 없는 서사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프리가 말한 형상화 단계는 서사에 허구적 종결을 부여하려는 목적론적 구성의 결과라고 비판된다. 자연서사, 즉 자발적인 대화에서 말해진 이야기에 대해 플롯을 선택적 자질로 취급함으로써 플루터덕은 문화적 서사에 대한 관습적 제약을 넘어 구술적 스토리텔링에 대한 탐구 가능성을 제시한다. M. Fludernik, *Towards a 'Natural' Narratology* (Routledge, 2002), pp. 311-321.
- 41) L. L. Viney, 같은 책, p. 1. P. Gilroy는 지배문화 내에서 세계에 대한 노예의 메시지는 암호화되거나 전도된다고 지적한다. 말하자면, 표면적 표현과 내적 입장이 분리될 수 있으므로 이산서사의 명시적 내용분석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P. Gilroy, 'There Ain't No Black in the

이야기꾼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이 아니라 들을 준비가 된 청중일 것이다.⁴²⁾ 서사에 대한 증폭된 관심이 기존 서사학의 개념을 반성하고 새로운 방법론의 모색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VI. 맺음말

지금까지 본고는 ‘서사’개념이 문학분과를 넘어 광범위하게 확산됨을 주목하고, 서사 개념의 확장과 관련된 주요 논점을 개관하고, 기존 구조주의 서사학의 한계, 서사의 가치와 삶의 관계를 검토한 다음, 서사론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전망하고자 하였다. 서사에 관한 어떤 이론이나 담론도 서사의 가능성을 고갈시킬 수 없다고 전제하였으며 본고 역시 이런 한계에서 자유롭지 않다. 본고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사 개념의 확산과 확장 요인으로 서사의 보편편재성과 다양성에 대한 인식, 콘텐츠로서의 가치라는 문화산업적 계산, 분과학문들의 서사적 전회, 경험이해 및 지식과 이론의 서사화 경향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서사적 인식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세계에 대한 이해를 편협하게 만들 수 있으며, 진리의 서사적 구성성 또한 해방적이면서 동시에 억압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둘째, 구조주의 서사학은 언술중심과 이야기중심의 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 언술우위론은 서사를 현실로부터 퇴행하는 언어게임으로 간주하며 삶의 새로움보다 작가의

Union Jack’ in *The Cultural Politics of Race and Nation* (Univ.of Chicago Press, 1991), pp. 159-160.

42) 자서전이나 커밍아웃과 같은 자기폭로서사의 문화적 정치적 힘이 강조되지만, 그런 표상과 실제 사회적 결과가 항상 생산적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서사가 화자와 청중의 해석공동체 내에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야기가 유포되고 개인적 사회적 변화라는 생산적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들을 준비가 된 청중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아성애자에 대한 해석공동체는 찾기 어렵고, 실질적인 처치와 지원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HIV환자의 자기폭로서사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된다. Corinne Squire, “Reading Narratives”, *Group Analysis*, 2005, Vol. 38: 1, pp. 91-107(<http://gaq.sagepub.com/content/vol38/issue1>).

자유를 강조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다른 한편, 이야기우위론이 제시하는 심층구조나 이야기문법은 텍스트 추상물로서 심신을 지닌 구체적 인간을 설정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셋째, 서사의 의의나 가치에 관한 여러 논의에서 가장 공통적인 것은 서사의 인식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서사텍스트의 모델을 모방하거나 서사텍스트의 권위에 의존하는 것이 허위요 결합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서사는 삶에 질서를 부여하고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중요한 수단임이 분명하다. 질서를 부여하는 원리인 서사구조(플롯)와 구체적 삶이 동형적 관계인가, 이형적 관계인가는 삶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넷째, 상황에 떠밀려 선택에 내몰리는 피동적 존재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삶과 서사의 주인공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인공일 수 있다면 그것은 상처 입은 자, 과거 있는 자로서 그러하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능동적인 이야기주체가 된다. 현대 서사론이 관심을 가져야 할 새로운 이야기주체는 사회적 약소자이며, 이들의 마이너리티서사를 이해하기 위해 기존 서사학의 방법이 비판적으로 극복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동윤, 「아리스토텔레스의 미메시스 개념과 허구적 이야기의 역동적 해석학-폴 리코르의 문학이론을 중심으로」, 『작가세계』, 통권 25호, 1995.
- 김용석, 『서사철학』, 13호, 휴머니스트, 2009.
- 김한식, 「폴 리코르의 이야기 해석학」, 『국어국문학』, 146호, 2007.
- 노에 게이치, 『이야기의 철학: 이야기는 무엇을 기록하는가』, 김영주 역, 한국출판마켓팅연구소, 2009.
- 도정일, 「서사론-무엇 하자는 것인가」, 『포에티카』 가을호, 1997.
- 르네 지라르,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김치수·송의경 역, 한길사, 2002.
- 마이클 J. 툴란, 『서사론』, 김병욱, 오연희 공역, 형설출판사, 1993.
-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손명현 역, 박영사, 1975.
- 윤성우, 『폴 리코르의 철학』, 철학과현실사, 2004.
- 이태수, 「인간: 미완의 기획」, 『인간·환경·미래』, 1호, 2008, .
-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포스트모던의 조건』, 유정완, 이삼출, 민승기 역, 민음사, 1992.
- 주네트 외, 『현대서술이론의 흐름』, 석경징 외 편역, 서울출판사, 1997.
- 폴 리코르, 『시간과 이야기 1』, 김한식, 이경래 역, 문학과지성사, 1999.
- 프랭크 커머드, 『종말의식과 인간적 시간』, 조초희 역, 문학과지성사, 1993.
- 황국명, 『삶의 진실과 소설의 방법』, 문학동네, 2001.
- Carr, D., *Time, Narrative, History*, Indiana Univ. Press, 1986.
- Dufoix, Stéphane, *Diasporas*, Univ.of California Press, 2008.
- Fludernik, M., *Towards a 'Natural' Narratology*, Routledge, 2002.
- Gilroy, P., "There Ain't No Black in the Union Jack", *The Cultural Politics of Race and Nation*, Univ. of Chicago Press, 1991.
- Hanne, M., *The Power of the Story: Fiction and Political Change*, Berghahn Books, 1994.
- Hardy, B., "An Approach through Narrative", M. Spilka(ed.), *Towards a Poetics of Fiction*, Indiana Univ. Press, 1977.
- Herman, D.(ed.), *Narratologies*, Ohio State Univ. Press, 1999.
- Hodge, R., *Literature as Discourse*, Polity Press, 1990.

- Jameson, F., *The Political Unconscious*, Cornell Univ.Press, 1981.
- Kraidy, M. M., *Hybridity, or the Cultural Logic of Globalization*, Temple Univ. Press, 2005.
- Lukács, G., *The Historical Novel*, Penguin Books, 1976.
- Lukács, G., 『소설의 이론』, 반성완 역, 심설당, 1985.
- Meister, J. C.(ed.), *Narratology beyond Literary Criticism*, Walter de Gruyter, 2005.
- Morson, Gary Saul, *Narrative and Freedom: The Shadows of Time*, Yale Univ. press, 1994.
- Nash, C., "Slaughtering the Subject: Literature's Assault on Narrative", in Nash, C.(ed.), *Narrative in Culture*, Routledge, 1990.
- O'Neil, Patrick, *Fictions of Discourse: Reading Narrative Theory*, Univ. of Toronto Press, 1994.
- Prince, G., "Surveying Narratology", in T.Kindt and Hans-Harald Muller (eds.), *What is Narratology*, Walter de Gruyter, 2003.
- Roemer, M., *Telling Stories*,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1995.
- Ryan, Marie-Laure, "Narrative", in D. Herman, M. Jahn, and Marie-Laure Marie-Laure Ryan(eds.), *Routledge Encyclopedia of Narrative Theory*, Routledge, 2008.
- Said, E. W., 『오리엔탈리즘』, 박홍규 역, 교보문고, 1991.
- Schank, R. C., *Tell Me a Story: A New look at Real and Artificial Memory*, Macmillan, 1990.
- Schmid, W., "Narrativity and Eventfulness", in T. Kindt and Hans-Harald Muller(eds.), *What is Narratology*, Walter de Gruyter, 2003.
- Squire, Corinne, "Reading Narratives", *Group Analysis*, Vol.38, 2005.
- Viney, L .L., *Life Stories: Personal Construct Therapy with the Elderly*, John Wiley & Sons, 1993.
- Werbner, Pnina and Modood, Tariq (eds.), *Debating Cultural Hybridity*, ZED Books, 2000.
- White, H., "Figuring the nature of the times deceased: Literary Theory and Historical Writing", in R.Cohen(ed.), *The Future of Literary Theory*, Routledge, 1989.
- White, H., *The Content of the Form*, Johns Hopkins Univ. Press, 1987.
- Wicker, Hans-Rudolf, "From Complex Culture To Cultural Complexity", Pnina Werbner and Tariq Modood(eds), *Debating Cultural Hybridity*, ZED Books, 2000.

【ABSTRACT】

The concept of 'narrative' is applied widely beyond literary departments nowadays. Dissemination and extension of the narrative concept is related to the omnipresence and diversity of narratives, values as cultural contents, narrative turns in branches of science and the narrativization of knowledge and theory.

The current various narrative phenomena are difficult to be explained thoroughly by structural narratology. The reason is that the discourse-oriented theory treats story as a word game, and the story-oriented theory emphasizes metaphysical structures or systems.

Therefore, the value of recognition that stimulates narrative imagination of human is more worthy of notice than universal structures or properties of narrative. Narrative is the way people understand themselves and others, and the principle of order in narrative has a pluralistic relationship with the process of life.

Close attention shows that we are not acting subjects but narrating subjects in our lives and stories. The problem of telling position which concerns who tells whom, however, is also the problem of politico-economical power. For these reasons, it is worthwhile for the narrative theory to understand minorities as narrating subjects and draw attention to those minority narratives.

【Key words】 narrative, narrative turn, narrating subject, minority, minority narrative

논문 투고일: 2010. 02. 10

심사 완료일: 2010. 04. 10

게재 확정일: 2010. 04. 12